

신평 강씨집안이우다.
 강씨성방 강씨대감이
 서월 신연살레
 갔단 오는 질에
 원당고을에 들어
 중식을 하느디,
 동니 굿청에
 열다섯 시오세 안밖의
 고운 비바리가
 갑사청 쾌지에
 연반물 치매를 입고
 굿을 하느디
 천하 일색이라.
 유향소에 성명 문안을 하난
 “도내의 심방이라”
 하였수다.
 강씨대감은 그 비바리를
 소실로 들여
 도폭 쏘곶에 곱전
 유향양촌을 들어오난
 양반의 집에
 천인 첩을 들일 수가 엇이난
 툇로 집을 짓언 살게 하고
 굿을 못하게 하였수다.
 처대 좋은 할마님은
 매날 문을 덕거놓고
 춤을 추어도
 간장을 풀리지 못하였수다.
 낭대죽대 몸은 몰라지고
 춘삼월 훈물끼에
 문을 중간 들어얏아
 안으로 불을 질러
 좋은 청춘 다 못살아
 원통하게 이성을 떴수다.
 “야속하고 원통하연

양반광 곶이
기일제스 스멍질을
받아먹을 수 엇노라.
안으로 안칠성으로
위하여 도라.”
하난,
안칠성으로 우양하곡
밭칠성으로 나누어,
성손 외손 동니 친근에
밭이 벌곡 줄이 벌던
조상이우다.
오늘날로 이 주당
굿문을 잡아시니
금정제 소리에
일천간장 신폴립서.
호서동 좁저고리 ㄱ심
열두폭 금사치매 ㄱ심
대령하엿수다.
일천간장 신폴립서.

<성산면 신폴리 여무 64세 홍매화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94-695.